

kotra NEWS

베트남
비즈니스

3월

발행일 : 2024년 2월 29일

KOTRA VIETNAM BUSINESS NEWS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 <팀코리아협의체 소개> 신용보증기금(KODIT)	7
✓ <팀코리아협의체 동정> KoDATA-금감원 베트남 합동 사회공헌	9
✓ <기업탐방> 롯데렌탈	10
✓ <법률> 베트남 자본금과 환율변동	12
✓ <회계> 회계감사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점 2탄	14
✓ <중재> 국제중재는 소송대비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16
✓ <통관> 전문검사대상품목 축소검토 및 강제인증 품목리스트 개정	17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 바리아-붕따우성 >	18
✓ <이달의 보고서> 베트남 비즈니스 가이드북	27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28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33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84 24-3946-0511 soorin@kotra.or.kr

< 저작권자 ©KOTRA >



K-레깅스, 베트남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 베트남, 운동 인구 증가로 스포츠 산업 성장 중
- 기술력과 현지 문화적 특성을 모두 고려한 진출 전략 필요

세명 중 한명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베트남인

베트남 체육청(Sports Authority in Vietnam)은 베트남 인구의 35.6% 및 가구의 26.7%가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는 통계치(2022년 기준)를 지난해에 발표했다. 이처럼 베트남에서 운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의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베트남의 스포츠의류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잠시 주춤했으나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 2023년 기준, 스포츠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옷을 뜻하는 스포츠 인스파이어드(sports-inspired) 의류, 기능성 스포츠의류 모두 코로나19 이전의 판매 실적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건강과 아름다움에 관한 관심이 운동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피트니스(fitness) 제품과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 스포츠의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

제조공장 바로 옆에 시장이 있는 셈이니 베트남을 제조 거점으로 하는 여러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은 베트남 소비자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성장으로 인해 베트남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해외 스포츠의류를 소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프랑스의 스포츠용품 기업인 데카트론은 베트남 스포츠의류 시장에서 옴니채널(omni-channel)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사례 중 하나다. 데카트론은 2019년에 베트남에 직접 유통채널을 구축해 현재 1500m² 규모의 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데카트론의 온라인 공식몰은 약 5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아디다스 또한 데카트론과 같이 베트남에서 자체적인 유통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이키, 푸마 등 일부 브랜드의 의류는 베트남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애국 소비'? 베트남 MZ 사로잡은 로컬 브랜드

현지 브랜드인 쿨메이트(Coolmate) 제품에는 '베트남에서 만든 자랑스러운 제품(proudly MADE IN VIETNAM)'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다. 나이키, 아디다스 등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제품 대다수가 베트남에서 생산(made in Vietnam)되는 것을 겨냥해 베트남 브랜드가 주체적으로 베트남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는 것을 'proudly'라는 단어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베트남의 젊은 소비자층의 '애국 소비'와 '가성비 소비'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품질이 좋은 해외 브랜드를 선호하던 베트남의 젊은 세대는 최근 국가 정체성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면서 자국 브랜드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이 더뎌져 지갑이 얇아진 탓에 자국 브랜드 소비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현재 베트남에는 쿨메이트 외에도 여러 브랜드들이 다양한 스포츠웨어 라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들의 제품 가격은 해외 브랜드에 비해 비교적 저렴해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시장 성장의 걸림돌, ‘짝퉁’

베트남은 수십 년 동안 속칭 ‘짝퉁’, 즉 위조 스포츠의류로 인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조 의류는 정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산하 시장감시국은 2023년에 전년대비 19% 증가한 5만 2352건의 모조품 사건을 처리했다. 위조 스포츠 의류에 한정된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시장감시국은 화장품·의류 등 소비재가 위조 문제가 가장 심각한 품목으로 파악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이러한 위조 의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법적 제재 수단이 잘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에서 누구나 손쉽게 위조품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위조 문제가 특히 심각하지만 유명 한국 브랜드 위조품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어 우리 의류 기업도 시장 진출 시 반드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사점 및 진출전략

베트남인의 건강 및 신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피트니스 산업 전반의 성장과 더불어 스포츠의류 시장의 동반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 특히 레깅스와 같은 품목은 베트남 여성 대상 기능성 의류에 대한 수요와 스타일을 중시하는 수요를 동시에 흡수할 수 있다. 게다가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위 두 기업인 아디다스(1위)와 나이키(2위)의 점유율을 합쳐도 23%에 불과해 아직 우리 기업도 진출 기회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KOTRA 하노이 무역관은 ‘2024 베트남 진출전략’에서 레깅스 등 스포츠의류를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했다.

▶2024 베트남 진출전략(KOTRA 하노이 무역관) [\[바로가기\]](#)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3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차별적인 기술력에 기반한 ‘기능성’ 확보다. 베트남 스포츠의류 시장에서의 글로벌 브랜드의 선전은 스포츠웨어 특성상 기능 및 소재(통기성 소재, 땀 흡수 원단, 압력 감소 운동화 등)가 중요한데 해당 브랜드들의 기술력에 대한 베트남 소비자의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오토바이를 애용하는 베트남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의류 디자인 및 마케팅이 필요하다. 집에서 운동하는 것이 아닌 이상 베트남 사람 열에 아홉은 체육관,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 등으로 운동을 하러 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할 것이다. 즉, 스포츠의류의 ‘원마일웨어(one-mile wear)’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 여성들의 경우 단거리 이동 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한국과 달리 오토바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외선·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더운 날씨에도 천으로 팔·다리를 가리는 경우가 많다.

셋째, 소비력이 큰 틈새시장 공략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중산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이지만 골프, 필라테스, 요가 등은 소비력 측면에서 아직은 일정한 수준의 진입 장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해당 스포츠 관련 제품은 소비력이 어느 정도 보장된 고객을 타깃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일 수 있다.



▶ 베트남 무역업계, 2월 터미널화물 처리비 10% 인상 단행 관련 정부에 불만 제기

베트남 화주위원회는 주요 해운업체의 터미널 화물처리비 인상 관련 정부에 항의 서한 전달했음. 기존 40피트 컨테이너당 터미널화물 처리비가 180~190달러에서 200~210달러로 인상되었으며 추가로, 컨테이너당 9~100달러에 이르는 10가지 요금 및 수수료가 부과됨. 주요 외국 해운사들이 홍해 사태와 관련해 당국의 제재 없이 요금과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다며 불만 토로했음.

[Vnexpress 2.23]

▶ 베트남, '정부 인공지능(AI) 준비지수' 세계 59위 기록

베트남 정부의 AI 준비 수준은 193개국 중 59위임. 총점은 54.48점으로 동아시아 권역 내 9위로, 동아시아 권역 상위국은 싱가포르(1위), 한국(2위), 일본(3위), 중국(4위), 대만(5위), 말레이시아(6위), 태국(7위), 인도네시아(8위)임. 2021년 총리가 발표한 결정문 제127/QD-TTg호 '2030년까지의 AI 연구·개발 및 응용 국가 전략'에 따르면 베트남은 2030년까지 AI 연구·개발 및 응용 부문 아세안 상위 4개국, 전 세계 5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함.

[Vietnam news 2.14]

▶ '24년 1월 수출, '22년 4월 이후 최고치 기록

베트남 1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336억 달러임. 농림수산업 및 제조·가공업, 각각 97%와 38% 증가해 호실적을 주도했음. 1월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642억 달러이며, 수입액 306억 달러, 무역수지는 2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Vietnam news 2.10]

▶ 베트남, '23년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 전년 대비 11% 증가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에 따르면 '23년 베트남의 산업재산권 출원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약 15만 6,000건으로 특허권 출원과 산업디자인권 출원건수는 각각 전년 대비 10.6%, 11.8% 상승했음. 베트남 지식재산청은 '23년 한 해 동안 12만 5,778건의 출원 처리했으며 지재권 활동과 경제사회발전 연관성을 강조하며, 베-미 BTA, CPTPP, EVFTA, RCEP 등 국제 협약 이행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함.

[Vietnam news 1.31]

▶ 베트남 빙그룹, '23년 매출 전년 대비 59%↑

베트남 최대 민간 기업 빙그룹(Vingroup)의 '23년 매출액은 65억 9,000만 달러를 달성함. 부동산 분야가 39억 달러로 빙그룹 전체 매출의 59%를 차지함. 전기차 자회사인 빙페스트(VinFast)는 전체 매출의 17.6%인 11억 8,000만 달러 기여했으며, 쇼핑몰 자회사인 빙컴리테일(Vincom Retail)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4억 달러 매출 기록함.

[Vnexpress 1.31]

▶ '24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월 대비 0.31%↑

베트남 '24년 1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3.37% 상승했으며, 근원물가지수는 2.72% 상승함. 9개 품목의 물가는 상승, 2개 품목은 하락함. 의료비가 1.02%로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 기록, 반면 통신비와 교육비는 각각 0.05%, 0.12% 하락함. '24년 1월 소매 판매는 218억 달러로 전월 대비 1.6%, 전년 동기 대비 8.1% 상승함.

[Vietnam news 1.30]

▶ '24년 1월 외국인직접투자,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

24년 1월 1~20일 FDI 유치액은 2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40.2% 증가함. 190개 프로젝트 대상 20억 달러 이상 신규 투자 유치했음. 신규 프로젝트 수 및 신규 투자 유치액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4.2%, 66.9% 증가한 수치임. 최대 투자국은 싱가포르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14억 달러 투자했으며, 일본, 사모아, 중국, 홍콩에 이어 한국은 4,600만 달러를 투자해 6위임.

[Vietnam news 1.29]

▶ 작년 한국산 휴대폰 및 부품 수입, 전년 대비 95% 급감

한국 휴대폰 및 부품의 수입규모 기준 베트남 점유율이 54%에서 6%로 급감했음. 베트남의 휴대폰 수요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됨. 베트남의 '23년 휴대폰 및 부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58.6% 감소한 87억 달러였음. 한편, 중국의 점유율은 '22년 38%에서 '23년 83%로 급증했음,

[Vneconomy 1.13]

▶ 베트남 주요 기업 '23년 실적 발표↑

HD Bank, 베트남 항공, 마산그룹 등 주요 기업, 전년 대비 호실적 기록함. 호찌민시개발은행(HD Bank), 5 억 3,300만 달러를 상회하는 세전이익을 달성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함.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은 '23년 매출은 8,300만 달러, 세후 손실은 전년 대비 46% 감소한 1억 9,600만 달러임. 베트남 최대 식품 제조·유통사 마산그룹(Masan Group), 전년 대비 2.7% 증가한 32억 달러 순이익 기록함.

[Vietnam Invest Review, Vietnam News]

▶ 베트남 '23년 자동차 판매, 전년 대비 25%↓

베트남 자동차 판매량이 동남아에서 전년 대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음. 정부의 등록세 50% 감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량 전년 대비 25% 감소했으며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 감소가 원인임. 판매대수는 '22년 대비 25.4% 감소한 301,989대로 동남아시아에서 5위 차지했으며 인도네시아(1위), 말레이시아(2위), 태국(3위), 필리핀(4위), 베트남(5위) 순임.

[Vnexpress, Vietnam news]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Tuyen Quang-Ha Giang Highway Expansion
 -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e.kim@kotra.or.kr)

2. 프로젝트 세부정보

발주처	기관명 :Tuyen Quang-Ha Giang Highway Expansion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현장위치 : Tuyen Quang province, Vietnam규모 : 약 3.5억 달러 (잠정)프로젝트 재원 : 정부예산(100%)프로젝트 단계 : Preparing for Pre-FS report프로젝트 관련일정<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3월 : Approval of Investment Policy- 2024.5월 : Approval of F/S report- 2024.9월 : Technical Design appraisal- 2024.10월 : Land clearance & Bidding for contractor- 2026.12월 : Finish입찰방식 : 최저가격 및 기술심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기업 Sub-contractor로 참여 가능세부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 기간 : 2024~2026- 프로젝트 길이 & 폭 : 77km & 25.25m (왕복 4차선)- 설치용량 : 2,940MW- 완공시기 : 2026년



신용보증기금(KODIT)

■ 기관 소개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기업의 금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1976년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설립 이후 40년 이상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국민경제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기업 경영환경 악화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복합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완전한 회복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산업구조 전환·ESG 확산 등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혁신산업 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자금을 집중 공급하여 2023년말 기준 총 83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해외진출기업보증

해외진출기업보증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에게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4월 출시한 프로그램입니다. 국내기업에 대한 대출보증을 통해 국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해당 자금을 해외종속기업에 투자·대여의 형태로 지원하는 ‘해외투자자금 보증’과, 해외종속기업이 베트남 등 현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기업 의뢰로 발행하는 보증신용장에 대하여 보증을 지원하고 실제 대출은 해외에 있는 국내 금융기관에서 실행되는 ‘해외사업자금 보증’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진출기업 보증 발굴 및 해외종속기업 신용조사를 위하여 2020년 12월 하노이사무소를 개소하였고, 해외진출기업보증을 전담하는 국내 전문심사팀 및 베트남 하노이사무소 협업으로 보증상담부터 현장조사,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까지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신규보증 지원 실적('18.4월~'23.12월) : 총 202건, 4,397억원 / 베트남 169건(83.6%), 2,824억원(64.2%)

<해외진출기업보증 개요>

구분	주요내용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종속기업을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국내기업) [업종]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 [업력] 3년 이상 (해외종속기업) [업종]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으로 국내기업 취급품목 관련 업종
보증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70억원 이내 (신보의 기존 보증잔액 포함)
보증료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최소 0.5%~최대 3.0%)
보증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금액의 90% 보증
보증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투자자금보증) 국내 지배기업에 대출보증 지원 후 해외 투자·대여 (해외사업자금보증)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 해외동반진출 보증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에서 발표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23.8.16., 관계기관 합동)의 후속조치로, 대기업과 동반하여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외진출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해외동반진출 보증 프로그램'을 2023년 9월 신설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자국중심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로 진출하려는 대기업의 수요가 있을 때, 국내 협력업체도 일감 지속 확보, 현지 무역규제(예: 자국생산 제품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 극복 등을 위하여 동반진출이 필요한 점에 착안하여 마련한 지원 제도입니다. 대기업의 특별 출연을 보증 재원으로 하여, 출연금의 최대 20배 한도로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를 지원합니다(예: 대기업에서 100억원 출연시 2,000억원까지 협력사에 지원 가능). 해외진출기업보증과 동일하게 '해외투자자금 보증' 또는 '해외사업자금 보증' 방식으로 운용하며, 기업당 최대 300억원까지 보증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보증료율은 0.5%p로 우대하고, 은행은 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대출금리를 자체 인하하여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해외동반진출 보증 프로그램 개요>

기본구조



보증개요

(지원대상) 대기업과 동반하여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대기업 협력업체로서, 해외 현지법인을 보유한 국내 모기업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생산설비 투자자금 등 필요자금 지원

(보증한도) 기업당 최대 300억원 보증 지원

(보증기한) 최대 10년 이내

(보증료율) 0.5%p 고정

(보증비율) 90%

보증절차

특별출연 및 추천 → 협력업체 심사 → 보증서 발급 → 해외진출 자금지원

대기업 참여혜택

①동반성장지수 평가점수 취득 ②특별출연금에 대한 기부금 세제혜택 ③협력사 금융지원

협력업체 참여혜택

①해외진출 금융지원 ②협력관계 공고화 ③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기업성장 발판 마련



KoDATA-금감원, 베트남 합동 사회공헌

한국평가데이터는 금융감독원 하노이 주재사무소와 베트남 타이응우옌 지역에서 2024년 첫 해외사회공헌사업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KoDATA는 2013년부터 노사 공동으로 봉사단을 꾸려 매해 해외 낙후 지역에서 봉사를 진행해왔다. 코로나로 인해 2018년을 끝으로 잠정 중단하다, 지난해 3월 NGO 단체 '지구촌 나눔운동'과 함께 동티모르에서 활동을 재개했다. 이번 'KoDATA 희망봉사단'은 정성웅 부사장과 노동조합 김장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 총 17명의 임직원으로 구성했다. 지난 1월 26일부터 약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타이응우옌 시 떤럽 중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현지에 있는 금감원 하노이 주재사무소에서도 봉사단의 방문을 반기며 활동에 동참했다. 떤럽 중학교에는 약 711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지만 약 20대의 컴퓨터만 보유하고 있는데다, 대부분은 고장이 난 상태여서 실습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봉사단은 컴퓨터 세트와 책상, 의자, 교육용 TV 및 인터넷 연결시스템 등 관련 용품을 지원했다. 컴퓨터실 개보수 후 열린 기념식에는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 이외에 타이응우옌 시 외무국의 응웬 미 링 부국장, 교육과의 레 쑐안 하이 부국장 등 현지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다. 봉사단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시범과 교육을 진행하며 문화 교류도 함께 진행했다. 봉사단의 전반적인 활동은 타이응우옌 시 외무부를 통해 현지 언론에도 조명했다. 봉사단의 공동단장을 맡았던 정성웅 부사장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봉사단의 활동이 현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KoDATA 희망봉사단은 아낌없는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팀코리아협의체 활동 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No.1 종합렌탈회사, 롯데렌탈

안성빈 법인장

롯데렌탈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롯데렌탈은 국내에서는 “롯데렌터카”라는 브랜드로 더욱 잘 알려진 종합렌탈 회사입니다. 국내 렌터카 기업 중 최초로 2007년 호치민에 법인을 설립한 이후 2013년 북부 하노이 및 중부 다낭에 지사를 확장하여 현재 북부, 중부, 남부 전역에서 차량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30여대의 차량으로 미미하게 시작하였으나, 신뢰할 수 있는 차량 관리 및 꾸준한 기사 교육을 통해 현재는 약 1,250여대의 차량을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베트남 No.1 렌터카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종합렌탈 회사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Biz 렌탈 사업부에서는 통신 주파수 측정 장비, 각종 OA 장비(복합기, PC, 모니터, 문서세단기) 및 각종 생활가전 폭넓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렌탈해 드리고 있습니다.

롯데렌탈의 베트남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롯데렌탈 베트남법인의 주요 사업은 크게 오토(AUTO)렌탈 사업과 Biz 렌탈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토렌탈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대상으로 기사를 포함한 업무용 승용 차량 렌탈 및 현지 직원들을 위한 통근버스 운송 사업입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하고 쾌적한 고품질의 서비스 경력을 인정받아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의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반 기업 이외 통학버스 운영을 통해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돋고 있습니다. Biz 렌탈 사업부에서는 복합기, PC 등 사무기기 외에 최근 롯데레지던스, L7호텔 등에 최신 가전 제품을 렌탈로 투입하면서 투숙객들의 편리한 생활을 돋고 있습니다.

베트남 렌탈 사업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직까지 베트남 국민들의 인식은 렌탈 보다는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탈 사업 환경이 녹록치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소유보다는 만족스러운 경험과 합리적인 소비에 집중하게 되므로 베트남 시장에서 렌탈 사업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자동차 및 가전 렌탈 등 대부분의 주요 사업이 B2C 보다 B2B에 편중되어 있지만 24년부터 현지인 대상 B2C 시장에 대한 진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아무래도 한국 직원과 현지인 직원·운전기사와의 문화적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초기에 한국적 사고를 가지고 직원들과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 답답한 점도 많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베트남 현지 문화를 우선 받아들이고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고쳐 나가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현지 직원들의 경조사 문화, 음식 문화, 회식 문화 등을 경험하면서 지금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직원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상호간의 차이점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경험, 신뢰와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하고 계신 신사업이 있으신가요?

한국 본사와 협력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하려는 사업이 있는데 바로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항 픽업&샌딩” 서비스입니다. 베트남 공항 도착 후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흔히들 겪게 되는 언어 장벽, 바가지 요금, 차량 위생 및 기사 서비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롯데렌터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손쉽게 예약과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 다낭 국제공항, 호치민 떤손녓 국제공항에서 이용 가능하며, 상반기 내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나트랑 사무소 추가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항 픽업&샌딩 이외에도 주요 관광지 및 골프장 투어, 일일 자유 렌트 상품도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롯데렌터카는 한국에서 개인 고객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새로운 방식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신차 장기렌터카” 문화를 이끌었던 회사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로 베트남 내에서 “B2C 신차 장기렌터카”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동차 구매 문턱을 낮추어 베트남 현지인들의 더 나은 삶을 창조하는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베트남 진출을 준비중인 한국기업에게 조언해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베트남에 처음 진출하면 언어도 다르고 정보가 부족하기에 많은 부분들을 현지 직원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 믿을 수 있는 한국계 기업들이 진출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직원의 추천대로 베트남 로컬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코트라, 코참, 한인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관련 분야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을 확인 후 업무 처리를 진행하시면 초기 사업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베트남 자본금과 환율변동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전현우 대표변호사

들어가며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등록증(IRC: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과 사업자등록증(ERC: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등록증에는 납입자본금이, 사업자등록증에는 정관자본금이 각 기재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자본금 계좌를 USD로 개설할 수 있기에 자본금 계좌에 USD로 납입을 하게 되는데, 베트남의 투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상 자본금은 USD외에 VND가 함께 기재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VND와 USD가 함께 기재되는 경우도 있지만 VND만 기재되는 경우가 있어, 등록증상 VND와 송금시점 USD 환율에 따른 VND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최근 몇몇 시성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자본금 미납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있어 문제가 됩니다.

문제상황

예를 들어 등록증상 1USD에 해당하는 환율이 24,450VND를 적용하여, 100만달러 자본금을 신청한 회사의 등록증상 VND자본금이 24,450,000,000VND로 기재되었고, 실제 100만달러를 전액 납입하였지만, 해당 또는 어떠한 기준일 환율이 변동하여 24,450VND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상 VND기준 자본금은 24,450,000,000VND이고, 100만달러를 모두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해당 시점 환율이 변동하여 23,450VND인 경우, 납입된 자본금은 23,450,000,000VND로 10억VND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USD기준으로는 전액 납입이 되었기에 자본금은 완납 되었어야 하나, VND환율 차이로 인해 VND는 서류상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이기에 자본금이 완납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나 미납된 VND를 송금하려고 한다면, 한국은 해외투자신고를 USD기준으로 하고 있고, 자본금 계좌 또한 USD로 개설되어 있어 미납된 VND를 송금하는 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논리를 반대로 적용한다면 VND환율이 신청한 시점보다 상승한 경우, 가령 25,550VND가 되었다면 자본금이 10억VND만큼 과 납입되었으니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 납입 거래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닌 일부를 송금하는 것은 규정상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즉, 신청서 작성 시점 USD와 VND를 병기하는 것은 실제 납입시점 – 미래의 어느 한점의 USD-VND환율의 변동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아주 우연히 그 시점의 환율이 동일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차이를 자본금 미납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USD든 VND든 어떤 하나의 통화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몇몇 기관에서는 미납된 자본금만큼 추가로 납입을 하거나 – 추가납입은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불가능합니다, VND자본금을 감소시킬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서류작업을 한차례 더하는 것 또한 가능하나 현실과 너무나 괴리된 주장이며 반대로 환율이 증가하여 VND가 더 많이 납입된 경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안 및 소결

이러한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안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청서상 USD - VND환율을 보수적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환율이 1\$=24,450VND이라면, 23,000VND과 같이 보수적인 환율을 적용하면 이와 같은 리스크는 회피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와 같이 환율이 대체로 작게 변동하며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USD의 자본금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USD를 기준으로 자본금 납입을 했고, 자본미래의 변동하는 시점의 VND 환율을 고려하여 자본금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극소수의 몇몇 공문이 자본금 납입을 VND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사례를 제외하고 이것이 문제가 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의 기관에서 이를 문제삼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리스크를 헷지하는 방안이 어렵지 않기에 안내드리며, 추후 사업자동록증 또는 투자동록증 변경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계감사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점 2탄

동아회계법인 엄진용 회계사

들어가는말

안녕하십니까?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대표 엄진용 회계사입니다. 본 원고를 작성중인 시점 현재 각 법인들마다 2023년 회계감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회계감사시 매년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 중 중요한 사항인 채권 및 채무 등의 관리에 관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채권 및 채무관리

회계감사시, 회사가 기말 현재 보유중인 채권 및 채무에 대한 그 가액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감사절차 중 하나가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조회서 확인입니다. 이 조회서는 회사가 기말 현재 장부에 계상된 거래처별 금액을 기준으로 샘플링을 하여 각 해당 거래처에 조회서를 보낸 후 일정 기간이 흐른뒤 회신을 하여 그 금액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조회서를 보내는 방법으로는 2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서 채권 및 채무 기말잔액을 기입하여 이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확인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 번째 방법으로서 채권 및 채무 기말잔액을 Blank로 기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직접 이를 확인하여 기입 후 회신을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던지 만약 금액이 서로 다르다면 그 이유를 규명하고 거래처별로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즉, 한 쪽에서의 채권은 상대방 쪽에서의 채무를 의미하겠지요. 감사를 하다보면, 이러한 채권 및 채무금액이 정확하게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즉, 회사에서 거래처 A사로부터 100만큼의 받을 대금이 있다고 장부에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 조회서를 통해 확인해보면 거래처 A사의 답변은 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없다고 하는 경우 또는 50만큼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다고 한다던지 150만큼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다고 답변을 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제로 거래처 A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였으나, 장부상에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였다고 하여 잔액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지요. 그만큼 역시 채권 및 채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3년이상 된 채권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회계감사시 이러한 채권에 대해 회수가능성을 0%로 놓고 충당금을 설정하거나 제각처리를 하려고 하다보면, 실제로는 멀쩡히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베트남에 투자한 대부분의 한국투자법인들의 거래가 사실상 본사와의 거래가 많다보니 상호간 정확한 기말잔액의 확인을 하지 않은채 맹목적으로 그냥 서명/날인하여 회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향후 그 잔액의 사실여부가 바뀌는 경우 심각한 감사위험을 초래하게 되며 시간이 많이 흐른 뒤 또는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사실여부조차 규명하기가 상당히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현재 사용중인 대다수의 회계프로그램들이 한국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채권/채무 관리를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또한 이러한 채권/채무를 별도로 관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법인의 채권 및 채무 잔액의 확인은 자산 및 부채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의미이상

으로 한국 본사에서 연결회계를 진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꼭 기말뿐만 아니라 매월 또는 매 분기별 단위로 일정기간마다 반드시 매출처와 매입처간 상호 잔액확인을 하는 내무업무절차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채권 및 채무라는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면 결국 회사입장에서 누군가로부터 받을 돈 및 누군가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이외에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금 & 미지급금 및 거래가 완성되기 이전에 미리 돈을 주거나 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선급금 & 선수금 역시 큰 범주에서는 각각 채권 및 채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채권 및 채무 등은 법인의 자금운용과도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법인이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본사와 자금일보 등 현황을 공유합니다. 이 때, 대부분의 경우 현재 현금시재 및 각 은행별 예금의 잔액 등만 공유하게 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채권을 적시에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 반대로 채무 또는 만기가 도래한 차입금 등을 적시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각 법인에서는 현금시재 및 은행 예금 잔액 뿐만 아니라 각 거래처별 채권 및 채무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회계감사시 주로 접하게 되는 오류 및 문제점들을 채권 및 채무 등의 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중재는 소송대비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대한상사중재원 유하영 소장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상설법정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 외에도 조정 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중재가 소송대비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합리적인 비용과 신속한 분쟁해결

중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3심제인 소송 대비 비용이 합리적입니다. 단심제로 종료되는 중재의 특성상 직/간접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재비용과 소송비용 비교]



중재비용: 관리요금 (부가가치세 포함) 및 중재인 수당

소송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

2. 전문가의 판정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이 법에 따른 판단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특성 및 상관습을 고려한 판정을 내리므로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효력 보장

중재판정은 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며 뉴욕협약에 따라 전세계 168개국 법원에서 중재판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이 보장됩니다.

4. 기업비밀 보장

비공개심리로 진행되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호되어 기업 신용도의 하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검사대상 품목 축소 검토 및 산업무역부 강제 인증 품목 리스트 개정

FTA활용지원센터 박민설 관세사

베트남은 2024년 1월 5일자 정부 시행령 02/NQ-CP를 통해 2024년도 국가 경쟁력 향상과 경영 환경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이 중 국가 전문검사 활동의 개선 및 국가 싱글윈도우시스템의 효과 증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국가전문검사란, 품목이 베트남 국가기술규정 및 기술표준에 부합하는지를 인증된 기관을 통해 검사하고, 그 검사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로써 대표적으로 베트남 제품 및 재화의 품질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부처별 Group 2 리스트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통관 사전 검사 및 식품 안전법에 따른 식품 안전 검사 등이 해당한다. 베트남의 경우 이러한 전문검사 대상 품목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여 통관이 거절되거나 추후 요건 미충족으로 행정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 통관 사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8개 부처(산업무역부, 과학기술부, 농업농촌개발부, 교통부, 공안부, 국방부, 보건부, 정보통신부, 자원환경부, 건설부, 노동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현재의 전문 검사 대상 품목의 지속적인 검토와 관리를 통해 1) 저위험 품목 및 무위험 품목 리스트에서 삭제 2) 판매용이 아닌 소량 수입 품목 등 전문 검사 면제 혹은 간소화 대상 품목 리스트의 보충 3) 선진 기술 보유국의 CFS, e-phyto 등 서류를 보유한 경우 해당 검사 결과 인정 등을 지시하여 전문 검사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부와 관련 부처들을 대상으로 국가기술규정과 기준에 대한 법령 개정안과 재화의 품질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진행을 지시하였다. 재무부로 하여금 전국 단위로 통일적인 전문 검사를 위한 처리 기관의 설립 및 위험 관리방안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시하였으며, 보건부는 약품 및 식품 안전 관리 등의 비준 과정에 있어 관련 규정의 간소화 방안의 이행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전문검사 관련 개선 사항은 베트남 수입 요건(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통한 우리 진출 기업 활동에 긍정적이며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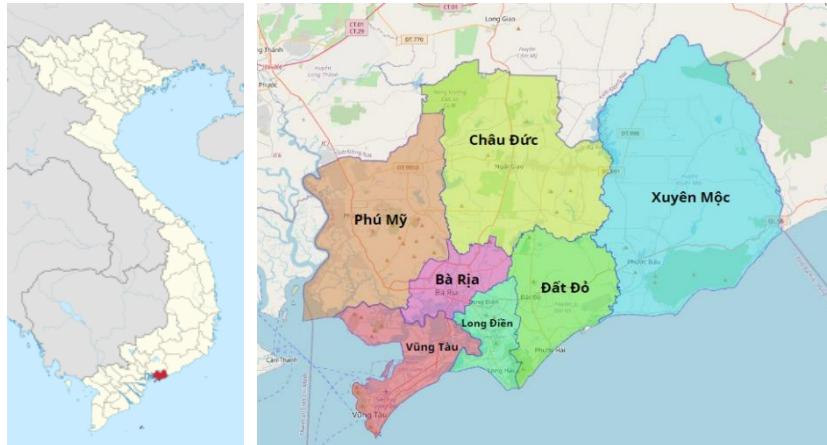
이러한 흐름에서 산업무역부는 2024년 2월 15일자로 발효하는 위험 유발 가능성이 있는 품목 리스트에 관한 시행 규칙(41/2023/TT-BCT)을 발표하여, 기존의 관련 시행 규칙 (33/2017/TT-BCT, 29/2016/TT-BCT, 41/2015/TT-BCT)을 대체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무역부 관할 강제 인증 품목군이 대폭 감소하여, 기존 시행 규칙 상 공업용 화학물질 및 폭발물, 건설용 특수 장비, 보일러류 등 총 18개 품목군, 124개 HS 코드에서 건설 용 장비, 폭발 방지 보일러 등의 품목이 삭제되어 폭발물 및 공업용 화학물질 2개 품목군, 11개 HS 코드로 축소되었다. 다만 기존 통관 후 품질 검사 대상이었던 공업용 화학물질이 통관 전 품질 검사 대상으로 포함되었기에 관련 수입 업체의 주의가 필요하며, 통관 단계에서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개별법에 따른 물품 품질 관련 조항은 시장 유통 과정에서 위반 시 리콜 등 행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베트남 남부 유망 투자지 바리아-붕따우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1,989km² 인구: 1.2백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거주 비율: 63.43%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리야-붕따우성은 베트남 남동부 지역의 해안 지방이며, 남부 핵심 경제 지역에 위치해 있음. 동해로 향하는 관문인 바리야-붕따우성은 도로, 항공, 수로를 통해 호치민시 및 기타 지방과 연결됨 바리야-붕따우성에는 2개의 도시가 있음. 해안 관광 도시이자 남부 석유 개발 활동의 중심지인 붕따우 시는 한때 성의 행정 중심지였으며, 2012년부터 성의 행정 중심지가 바리야 시로 변경되었음. 북쪽으로는 동나이(Dong Nai)성, 서쪽으로는 호치민 시, 동쪽으로는 빈투언(Binh Thuan)성 및 동해, 남쪽으로는 동해와 인접해 있음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1번, 51번, 55번, 56번 등 국도 항구: 까이멥-티바이(Cai Mep - Thi Vai) 항만 클러스터 항공: 붕따우(Vung Tau) 공항 및 꼰다오(Con Dao) 공항 	
GRDP 성장률 / 1인당 GDP('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대비 GDP 성장률: 10.97% 성 1인당 GDP: US7,611 달러/년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수출액: US 63.89억 달러 / 총 수입액: US 93.57억 달러 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5.39%), 서비스업(21.06%), 농수산업(2.4%) 산업 경제는 여전히 성의 주요 경제 부문으로 원유 및 가스 채굴 산업은 전체 경제의 41.84%를 차지하며 제조가공업은 18.95%를 차지함 	
산업구조('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건설업 70.37%, 서비스업 15.98%, 농수산업 5.87% 	
노무여건('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연령 인구 비율: 55% 노동연령 인구 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80.6% 직업교육 이수자 중 자격증 보유 비율: 33% 	
최저임금('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붕따우(Vung Tau) 시, 푸미(Phu My) 군: VND4.680,000= US191 달러(1급지) 바리야(Ba Ria) 시: VND4.160,000= US170 달러(2급지) 롱디엔(Long Dien) 현, 닷더(Dat Do) 현, 쿠엔목(Xuyen Moc) 현, 자우득(Chau Duc) 현, 꼰다오(Con Dao) 현 : VND3,640,000= US148 달러(3급지) 	
외국인투자 ('22.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리야-붕따우성의 총 외국인투자는 447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300.28억 달러 (한국투자) 120개 프로젝트, 44.8억 달러 규모임 	

투자환경



바리아-붕따우성의 위치 및 지도

▶ 교통시스템

(도로)

- 1번, 51번, 55번, 56번 국도는 바리아-붕따우성의 간선도로임. 그 중, 51번 국도는 롱타인(Long Thanh)-자우자이(Dau Giay) 고속도로로 연결됨.
- 까이멥-티바이(Cai Mep - Thi Vai) 항구 시스템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가 점차 완성되고 있음:
 - 까이멥-티바이(Cai Mep - Thi Vai) 항만간 도로 1단계 준공
 - 56번 고속도로 우회도로 공사 착공
 - 푸옥호아-까이멥(Phuoc Hoa - Cai Mep) 도로
 - 51번 국도와 푸미(Phu My) 군의 까이멥(Cai Mep) 항구를 연결하는 991B 성도로
 - 롱선-까이멥(Long Son - Cai Mep) 도로 및 미수안-티바이(My Xuan - Thi Vai) 항구 뒤 도로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수립 중
 - 비엔호아-붕따우(Bien Hoa - Vung Tau) 고속도로 및 프억안(Phuoc An) 교량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계획 개발을 위해 교통부 및 동나이(Dong Nai)성과 협력하고 있음

(항만) 현재 성에서는 50개 항구 프로젝트(부두 125개 및 부표 선착장)를 운영하고 있음. 총 설계 용량은 1억 5200만 톤/년이며, 부두의 총 길이는 17,459m. 까이멥-티바이(Cai Mep - Thi Vai) 항만 클러스터에만 24개의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2010년에 비해 프로젝트 수가 두 배 증가한 것임. 까이멥-티바이 Cai Mep - Thi Vai 항만은 현재 전체 붕따우(Vung Tau) 항구 시스템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는 유일한 부두이며 현재까지 8개의 컨테이너 항구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음. 설계 용량은 837만 TEU이며, 컨테이너 부두의 총 길이는 5,658.3m임. 까이멥-티바이(Cai Mep - Thi Vai) 항만은 200,000DWT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베트남의 유일한 항구 클러스터이며, 미주와 유럽으로 직항 선박을 보유하는 베트남 남부의 유일한 항구 클러스터기도 함. 동시에 이는 베트남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인 심해 컨테이너 항구 클러스터 중 하나임.

금월의 유망성 투자 정보

kotra NEWS
베트남
비즈니스

(수로) 바리야-붕따우성은 내륙 수로 운송 개발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 본토 지역에서의 운송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24개의 하천 경로와 꼰다오(Con Dao) 지역의 12개 해양 채널을 갖춘 기존 항구 및 내륙 부두 시스템은 성의 내륙 운송 요구를 충족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호치민시 지역, 메콩강 삼각주 및 캄보디아 와 수출입을 위한 화물을 환적함.

(항공) 붕따우(Vung Tau) 공항 및 꼰다오(Con Dao) 공항 등 2개의 공항이 있음.

▶ 관광

바리야-붕따우성에는 붕따우 시, 닷더(Dat Do) 현, 롱디엔(Long Dien) 현 및 쿠엔목(Xuyen Moc) 현의 해변들[호잠(Ho Tram) 해변, 호곡(Ho Coc) 해변 등], 빈자우(Binh Chau) 온천, 호마이(Ho May) 관광 지와 같은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이 있음. 빈자우-프억브우(Binh Chau-Phuoc Buu) 자연보호 구역에는 원시림, 호수, 깨끗한 해변, 고운 모래, 아름다운 산봉우리가 있으며, 방문객들은 배를 타고 광활한 멜라루카 숲과 습지 생태계를 둘러볼 수 있고 신선한 공기를 즐기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 수 있음. 또한 꼰다오(Con Dao)현에의 꼰다오(Con Dao)는 크고 작은 1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로 장엄한 지형, 풍부한 천연자원, 아름다운 풍경과 해변, 유명한 감옥 유적지가 있음.



호마이(Ho May) 관광지



호잠(Ho Tram) 해변



꼰다오(Con Dao) 군도



빈자우-프억브우(Binh Chau - Phuoc Buu) 자연보호구역



바리아-붕따우성은 풍부한 천연자원, 황금빛 숲, 은빛 바다, 비옥한 토양을 갖춘 지역 중 하나로 간주됨. 이는 바리아-붕따우성의 경제적, 사회적 개발 위한 강점이기도 함:

▶ 토지자원

바리아-붕따우성은 토지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매우 다양한 토지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동부 지역 및 전국 최고 수준임. 바리아-붕따우성에는 고산지대 일부 토지군을 제외하고 전국 12개 토지군 중 9개 토지군이 있음. 특히 현무암 토양은 베트남의 산과 구릉지의 가장 좋은 토양으로 분류되며, 충적토는 평야의 가장 좋은 토양으로 분류됨. 일반적으로 바리아-붕따우성의 토양은 현무암질 토양의 적갈색, 황갈색, 암갈색 토양, 흑색 토양, 충적토, 회색 토양 등 상대적으로 비옥도가 높음.

▶ 수도

바리아-붕따우성의 수자원은 주로 티바이(Thi Vai) 강, 딘(Dinh) 강, 레이(Ray) 강의 3개 주요 강에서 공급됨. 티바이 강은 수원이 염분이어서 생산에 이용할 수 없으나, 하상이 넓고 깊어 수로 및 해양교통체계 개발에 큰 의미가 있음. 딘 강과 레이 강은 성의 일상생활과 농업,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수원을 제공하는 강임.

▶ 산림

바리아-붕따우성은 산림면적이 작고 조림이 가능한 토지면적은 38,850ha 임. 그 중 현재 산림이 우거진 면적은 30,186ha이며, 산림이 조성되지 않은 산림지는 약 8,664ha임. 현재 바리아-붕따우성 전체에는 빈자우-프억브우(Binh Chau - Phuoc Buu) 자연 보호 구역과 꼰다오(Con Dao) 국립 공원 구역이라는 두 가지 주요 원시림 지역이 있음.

▶ 공단 개발을 통한 경제 개발 동력

현재 바리아-붕따우성에는 총면적 8,492.66ha의 15개 산업단지가 설립되어 있음. 그 중, 7,242.66ha 면적의 13개 산업단지가 운영되고 있음.

- 붕따우(Vung Tau) 시: Dong Xuyen 공단
- 푸미(Phu My) 군: Phu My I, Phu My II, 확장된 Phu My II, My Xuan A, My Xuan A2, Phu My 3, My Xuan B1-Conac, My Xuan B1-Dai Duong, My Xuan B1-Tien Hung, Cai Mep 등 9개 공단
- 자우득(Chau Duc) 현: Chau Duc, Da Bac 등 2개의 공단
- 닷더(Dat Do) 현: Dat Do 1 공단

또한 총면적 1,250ha에 2개의 산업단지가 설립되어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고 있음.

금월의 유망성 투자 정보

kotra NEWS
베트남
비즈니스



▶ 인센티브 지원 정책

- 법인 소득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218/2013/ND-CP 의결서(2013.12.26)
- 투자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31/2021/ND-CP(2021.03.26) (투자우대 분야/지역 목록 포함)
-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에 대한 제46/2014/ND-CP 의결서(2014.05.15)

투자지역	법인세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 꼰다오(Con Dao)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첫 15년간 세율 10%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본건설기간동안면제(최대3년간), 이후: 특별투자우대분야: 전체기간면제투자우대분야: 15년간계속면제투자우대미등록분야: 11년간계속면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푸미(Phu My)군, 쭈엔목(Xuyen Moc) 현, 자우득(Chau Duc)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본세율20%첫 10년간 세율 17% (2016년 1월 1일부 터유효)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본건설기간동안면제(최대3년간), 이후: 특별투자우대분야: 15년간계속면제투자우대분야: 11년간계속면제투자우대미등록분야: 7년간계속면제

- 수입세: 수출입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134/2016/NĐ-CP 의결서(2016.09.01)에 따르면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 분야에 따라 투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고정자산 형성을 위해 수입된 화물, 설비 및 기계에 대한 면세 등
-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원자재, 소모품, 부품에 대하여 5년간 면세 등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22년 12월말까지 바리야-붕따우성 대상 총 외국인 투자는 447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300.28억 달러가 투자 등록되어 있음.

▶ 바리야-붕따우성 내 10대 FDI 프로젝트

No.	프로젝트명	투자국	투자금액 (US달러)
1	남부석유화학단지	태국	53.7억
2	Ho Tram Project Co., Ltd	캐나다	42.3억

금월의 유망성 투자 정보

kotra NEWS
베트남
비즈니스

No.	프로젝트명	투자국	투자금액 (US달러)
3	Hyosung Vina Chemicals Co., Ltd - 폴리프로필렌(PP) 공장 및 지하 액화석유가스(LPG) 저장고	한국	13억
4	China Steel And Nippon Steel Vietnam JSC(CSVC)	일본	11.5억
5	Posco Vietnam Co., Ltd - 철강공장	한국	11.3억
6	Posco Yamato Vina Steel JSC	미국	7.04억
7	Mekong Energy Company Ltd - Phu My 2.2 발전소	일본	4.8억
8	Formos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rporation - 미쉬안(My Xuan) 국제 일반 항구	대만	4.77억
9	Nam Con Son Pipeline Company	네덜란드	4.7억
10	Phu My 3 BOT Power Company Ltd - Phu My 3 BOT 발전소	싱가포르	4.5억

▶ 한국 투자

2022년 12월 말까지 한국 투자는 120개의 프로젝트가 있으며, 44.8억 달러가 투자 등록되어 있음.

공단 현황

▶ 공단정보

공단명	설립년도	면적(ha)	주요 정보	투자자/개발사
닷더(Dat Do) I	2009	49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율 : 약 40% 인프라 사용료: 90 - 110 USD/m² 관리비 : 0.6 USD/m²/년 토지 임대: 0.11 USD/m²/년 특징: 다분야, 특이 첨단 기술, IT, 지원산업 	Tin Nghia - Phuong Dong Industrial Park JSC (https://tinnghiaphuongdong.com)
미수안(My Xuan) B1 – 띠엔훙(Tien Hung)	2006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중율: 80% 인프라 사용료: 135 USD/m² 관리비 : 0.4 USD/m²/년 폐수처리비 : 0.4 USD/m³ 	Tienhung Co.,Ltd (http://www.tienhungcorp.com)
까이멥(Cai Mep)	2002	6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중율: 69.86% 투자유치분야: 식품가공, 석유화학 제품 가공, 석유 및 가스, 화학 산업, 야금 및 중공업, 친환경 산업 등 	Saigon Construction (https://saigonconstruction.com.vn)

금월의 유망성 투자 정보

kotra NEWS
베트남
비즈니스

공단명	설립년도	면적(ha)	주요 정보	투자자/개발사
푸미(Phu My) 3특화 공단	2007	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율: 70.46%(42개의 산업) 인프라 사용료: 2077년까지 전체 토지 임대 기간 동안 210~220 USD/m² 국가에 납부하는 토지 사용료: 건설이 완료되고 운영되는 날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면제됨 주요 투자 유치 분야: 중공업, 지원 산업, 물류 등 	Thanh Binh Phu My JSC (https://phumy3sipp.com)
자우득(Chau Duc)	2008	1,55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율: 38% 인프라 사용료: 135 USD/m² 관리비: 0.5 USD/m²/년 투자 유치 분야: 다분야, 청정 산업, 첨단 기술, 공장 건설 및 임대, 창고-서비스 등 	Sonadezi Chau Duc Shareholding Company (https://sonadezichauduc.com.vn)
푸미(Phu My) 2	2007	62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율: 80% 인프라 사용료: 130 USD/m² 관리비: 0.65 USD/m²/년 토지 임대: 0.1 USD/m²/년 투자 유치 분야: 물류, 부동산, 창고, 냉장, 수출입, 제조 가공업 	IDICO Corporation (https://idico.com.vn)
확장된 푸미(Phu My) 2	2008	400.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율: 56% 인프라 사용료: 130 USD/m² 관리비: 0.65 USD/m²/년 토지 임대: 0.1 USD/m²/년 투자 유치 분야: 물류, 부동산, 창고, 냉장, 수출입, 제조 가공업 	IDICO Corporation (https://idico.com.vn)
미쑤안(My Xuan) B1 – 다이즈엉(Dai Duong)	2006	13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율: 46.43% 인프라 사용료: 100 USD/m² (VAT 제외) 관리비: 0.4 USD/m²/년 폐수 처리 비용: 0.35 USD/m³(A 유형), 0.4 USD/m³(B 유형) 투자 유치 분야: 기계 제조, 수리 및 조립, 농림산물 가공 식품 및 음료 가공, 문구류/플라스틱 제품 등의 경공업, 친환경 산업 등 	Dai Duong Investment Construction Entertainment Corporation (www.daiduongcompany.com.vn)

금월의 유망성 투자 정보

kotra NEWS
베트남
비즈니스



공단명	설립년도	면적(ha)	주요 정보	투자자/개발사
롱손(Long Son) 석유 공단	2008	850	<ul style="list-style-type: none">입주율: 0%임대 가격 : 미정관리비 : 미정산업단지의 특징: 정유, 석유화학 프로젝트	Long Son Petroleum Industrial Zone Investment JSC (https://www.longsonpic.vn)
롱흐엉(Long Huong)	2009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입주율: 0%임대 가격 : 미정관리비 : 미정산업단지의 특징: 다분야	현재 인프라 투자허가서를 제출하는 단계임



투자 유망분야

- 지원 산업(섬유, 신발, 가정용품, 전자, 기계 공학, 자동차 생산 및 조립 등)
- 물류
- 가공산업
- 에너지 산업
- 해양 서비스 산업
- 건축자재
- 정유소
- 첨단기술 적용, 노동력 부담이 적은 친환경산업

투자 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바리아-붕따우성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Mr. Nguyen Van Phu (투자관리실 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 +84-254 3816 640• Email: bqlkcn@baria-vungtau.gov.vn /• phunv@bqlkcn.baria-vungtau.gov.vn• Website: https://bqlkcn.baria-vungtau.gov.vn
바리아-붕따우성 투자, 무역, 관광 진흥 센터	Mr. Le Hoang Anh (부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 +84-254 3573 082• Email: xtdttmdl@baria-vungtau.gov.vn• Website: https://ittpa.baria-vungtau.gov.vn

베트남 비즈니스 가이드북

I 베트남

1. 베트남 개요
2. 코로나19 이후 베트남 콘텐츠 시장

II 베트남의 콘텐츠 시장

1. 베트남 방송 시장
2. 베트남 애니메이션 시장
3. 베트남 음악
4. 베트남 게임 시장
5. 베트남 캐릭터 시장

III 베트남 비즈니스 준비

1. 법인 설립 전 검토 사항
2. 법인 설립의 진행
3. 설립 후 관리 사항
4. 비즈니스 관련 유의사항

IV 베트남 B2B비즈니스 지원

1. B2B 행사 현황
2. B2B 비즈니스 인터뷰

V 베트남 콘텐츠 기업 인덱스

1. 카테고리별 인덱스
2. ABC 인덱스

VI 베트남 생활정보

1. 체류
2. 주거와 사무실
3. 생활정보
4. 기타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지식>해외산업정보>글로벌&특화보고서에서 확인 가능.

클릭시 해당 게시글로 이동합니다.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1. 1~2024. 1. 20 기준 누계		2024. 1. 1 ~ 1.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9,890	85,951.24	24	19.71	46.02
싱가포르	3,530	76,132.76	30	1,318.45	1,406.29
일본	5,280	74,204.22	13	302.61	296.87
대만	3,119	39,381.89	11	14.15	38.25
홍콩	2,485	34,342.02	17	74.66	95.28
중국	4,311	27,680.87	59	142.05	151.65
버진아일랜드(영)	914	22,761.47	1	2.38	10.62
네덜란드	432	14,228.48	-	-	23.21
태국	735	14,030.72	1	0.28	16.36
말레이시아	731	13,107.14	1	0.02	0.38
미국	1,342	11,829.52	7	2.68	3.34
기타	6,607	58,251.18	26	134.12	274.76
전체 합계	39,376	471,901.50	190	2,011.12	2,363.00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산업	2024. 1. 20 기준 누계		2024. 1. 1 ~ 1.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6,960	284,427.93	63	715.91	925.84
2	부동산 경영	1,147	69,472.24	10	1,243.58	1,272.95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94	40,671.39	-	-	1.48
4	호텔, 외식서비스	991	14,345.85	3	0.29	1.29
5	건설	7,100	11,091.81	74	40.9	54.49
6	도소매, 유지보수	1,818	10,862.47	2	0.64	5.28
7	물류운수	1,102	6,173.98	5	1.4	1.77
8	과학기술, 전문활동	4,515	5,446.37	14	2.4	65.2
9	정보통신	2,951	5,127.03	13	1.58	3.8
10	채광	107	4,892.57	-	-	-
11	교육, 양성	689	4,615.81	3	0.09	0.14
12	농, 임, 수산	536	3,903.86	-	-	34.34
13	예술 오락	143	3,169.84	-	-	-
14	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86	3,158.22	-	-	2.5
15	의료와 사회복지	158	1,763.89	-	-	0.04
16	행정, 지원 서비스	624	1,070.67	3	4.32	4.39
17	금융, 은행, 보험	97	929.01	-	-	-
18	기타 서비스	152	767.51	-	-	0.07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	-	-
합 계		39,377	471,901.50	190	2,011.12	2,363.00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증감율%)

구 분	2021	2022	2023	2024.1
수 출	3,363.1	3,713	3,546(-4.6)	345(+46.0%)
수 입	3,322.3	3,589	3,263(-10.3)	308(+34.4%)
무역수지	40.8	124	280	36.3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1	2022	2023	2024.1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7,537	57,994	52,379(-9.7)	5,579(+11.4)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50,828	55,536	57,336(+3.2)	5,345(+68.3)
기계/플랜트 및 부품	38,344	45,751	43,128(-5.7)	4,017(+38.7)
섬유/직물제품	32,753	37,566	33,329(-11.4)	3,132(+38.9)
신발류	17,751	23,895	20,237(-15.3)	1,970(+43.8)
원목 및 목제품	14,809	16,011	13,467(-15.9)	1,468(+83.1)
철강제품	11,795	7,993	3,973(-14.5)	385(+23.2)
수송수단 및 부품	10,616	11,988	14,157(+18.1)	1,328(+55.5)
수산물	8,886	10,923	8,971(-17.8)	749(+65.1)
원사(Yarn)	5,612	4,713	4,355(-7.6)	374(+66.0)
기 타	87,379	98,934	103,339	10,183
합 계	336,310	371,304	354,671(-4.6)	34,53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1	2022	2023	2024.1
전자제품 및 컴퓨터	75,440	81,884	87,965(+7.4)	8,559(+30.5)
기계/플랜트 및 부품	46,296	45,192	41,579(-7.9)	3,983(+45.4)
각종 전화기 및 부품	21,434	21,126	8,749(-58.6)	902(+13.7)
의류(원단)	14,324	14,706	13,016(-11.5)	1,175(+25.6)
플라스틱 원료	11,685	12,387	9,755(-21.2)	917(+55.6)
각종 철강	11,523	11,920	10,425(-12.5)	1,059(+101.6)
기타 비금속	8,611	9,253	7,626(-17.6)	731(+30.4)
플라스틱 제품	7,959	8,119	7,508(-7.5)	738(+44.1)
화학제품	7,627	9,144	7,605(-13.0)	669(+33.5)
화학물질	7,735	8,747	7,726(-15.5)	678(+41.3)
기 타	119,600	136,423	124,419	11,481
합 계	332,234	358,901	326,373(-9.2)	30,898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0	2021	2022	2023	2024.1
1	미국	77,077	96,293	109,388	97,020	10,050
2	중국	48,905	56,009	57,702	61,207	4,555
3	한국	19,107	21,945	24,293	23,498	2,340
4	일본	19,284	20,128	24,232	23,314	2,229
5	홍콩	10,437	11,996	10,936	9,631	901
6	네덜란드	6,999	7,686	10,430	10,241	1,055
7	독일	6,644	7,286	8,968	7,400	772
8	인도	5,235	6,259	7,961	8,498	829
9	태국	4,917	6,161	7,476	7,192	734
10	영국	4,955	5,765	6,065	6,345	780
	기타	79,094	96,782	103,853	100,325	10,183
	합계	282,654	336,310	371,304	354,671	34,53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0	2021	2022	2023	2024.1
1	중국	84,187	109,874	117,866	110,644	11,880
2	한국	46,895	56,155	62,088	52,511	4,188
3	대만	16,701	20,772	22,631	18,421	1,939
4	일본	20,341	22,648	23,373	21,638	1,952
5	미국	13,713	15,270	14,470	13,822	1,235
6	태국	10,968	12,564	14,092	11,797	885
7	오스트레일리아	4,677	7,946	10,144	8,533	729
8	말레이시아	6,575	8,148	9,124	7,809	856
9	인도네시아	5,382	7,587	9,641	8,728	708
10	인도	4,435	6,950	7,086	5,864	508
	기타	48,826	64,320	68,386	66,606	11,481
	합계	262,700	332,234	358,901	326,373	30,898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율%)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1
수 출	48,510(0.7)	56,729(16.9)	60,972(7.5)	53,479(-12.3)	4,189(+11.2)
수 입	20,579(-2.3)	23,965(16.5)	26,726(11.5)	25,941(-2.9)	2,645(+10.1)
무역수지	27,931	32,763	34,246	27,550	1,543

자료원: KITA

한국의 对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0	2021	2022	2023	2024.1
반도체	11,501(7.2)	14,026(22)	16,240(15.8)	12,729(-21.6)	1,197(+31.9)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9,552(19.9)	12,050(26.1)	12,527(4.0)	12,350(-1.4)	667(-21.5)
석유제품	1,196(-45.5)	1,157(-3.2)	3,733(222.3)	3,327(-10.8)	222(-24.0)
무선통신기기	3,460(18)	3,315(-4.2)	2,358(-29.2)	2,166(-8.1)	233(+44.9)
합성수지	1,615(-0.6)	2,415(49.5)	2,581(6.9)	2,001(-22.5)	190(+39.1)
기구 부품	2,241(0.5)	2,405(7.3)	2,194(-8.8)	1,861(-15.1)	151(+4.3)
플라스틱 제품	1,115(-7.8)	1,174(5.3)	1,067(-9.2)	1,021(-4.2)	83(+24.2)
철강판	1,052(-9.1)	1,267(20.4)	1,069(-15.6)	887(-17.0)	66(+48.1)
기타기계류	686(-18.6)	717(4.5)	815(13.6)	801(+1.0)	66(+29.1)
계측제어분석기	669(-14.5)	957(43.0)	793(-17.1)	734(-9.9)	46(+5.1)
기타	15,437	17,039	17,242	15,612	1,309
합 계	48,511(0.7)	56,729(16.9)	60,972(7.5)	53,489(-12.3)	4,189(+11.2)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对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0	2021	2022	2023	2024.1
무선통신기기	4,980(-12.5)	5,579(12)	5,986(7.3)	4,543(-24.1)	504(+24.1)
의류	3,145(-13.7)	3,393(7.9)	3,840(13.2)	3,542(-7.7)	333(-15.5)
컴퓨터	1,270(87.1)	1,659(30.6)	1,948(19.1)	2,075(+6.6)	374(+17.2)
반도체	561(18.9)	750(33.8)	787(5.0)	2,053(+160.9)	215(+208.0)
산업용 전기기기	574(20)	725(26.2)	970(33.8)	1,396(+44.0)	134(+35.6)
신변잡화	1,029(-2.2)	984(-4.4)	1,250(27.2)	1,252(+0.1)	111(-16.1)
목재류	632(-3.9)	755(19.5)	942(24.8)	722(-23.3)	64(-27.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027(-14.2)	876(-14.7)	783(-10.5)	657(-15.9)	27(-54.2)
기구부품	481(-5.9)	624(29.6)	654(4.8)	571(-12.7)	46(+10.6)
영상기기	391(11.8)	426(8.9)	441(3.6)	409(-7.2)	37(+11.9)
기 타	6,474	8,161	9,103	8,718	795
합 계	20,579(-2.3)	23,966(16.5)	26,726(11.5)	25,938(-2.9)	2,645(+10.1)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2~2023년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시 기	단위	국 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23년(연간)	%	1.1	N/A	3.8	5.1	5.1
	2023년 3Q	%	1	5.9	3.3	4.9	5.3
	2023년 4Q	%	2.2	N/A	3.4	5	6.7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3년(연간)	-	119.7	N/A	127.3	N/A
		2023년 11월	-	117.4	8.9	131.8	N/A
		2023년 12월	-	125.8	1.3	130.1	N/A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3년(연간)	-	N/A	51.5	47.7	N/A
		2023년 11월	-	50.3	52.7	47.9	51.7
		2023년 12월	-	50.5	51.5	47.9	52.2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3년(연간)	-	113.6	N/A	89.9	N/A
		2023년 11월	-	114.9	N/A	78.9	123.6
		2023년 12월	-	115.3	N/A	78.9	123.8
	소매판매	2023년(연간)	-	N/A	4.50%	171.8	N/A
		2023년 11월	-	98.2	2.90%	174.5	2.1
		2023년 12월	-	112.4	2.90%	177.6	0.1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3년(연간)	%	3.7	7.9	N/A	N/A
		2023년 11월	%	4.7	4.1	1.5	2.86
		2023년 12월	%	3.6	3.9	1.5	2.61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3년(연간)	%	12.7	N/A	10.9	4.4
		2023년 11월	%	N/A	N/A	N/A	N/A
		2023년 12월	%	N/A	N/A	N/A	N/A
고용	실업률	2023년(연간)	%	1.9*	N/A	3.4	N/A
		2023년 3Q	%	2	4.6	3.4	5.3
		2023년 4Q	%	2	3.6	3.3	N/A
무역	수출증가율	2023년(연간)	%	△10.1	N/A	△8.0	△11.3
		2023년 11월	%	2.8	△13.0	△5.9	△8.6
		2023년 12월	%	△4.6	△0.5	△10.0	△5.8
	수입증가율	2023년(연간)	%	△13.4	N/A	△6.4	△6.6
		2023년 11월	%	△2.5	1.3	1.7	3.3
		2023년 12월	%	△9.3	△5.1	2.9	△3.8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전망치는 *표시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MEET KOREA 2024 in BINH DUONG

KOTRA는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코참,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우리 진출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개선과 사업기회 발굴을 위한 MEET KOREA 2024를 5월 16일(목)~ 5월 17일(금) 빈증성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남부 핵심 경제지역인 빈증성을 포함한 19개성·시의 고위급(당서기 혹은 성장급 등)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이 베트남 지방성·시와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정부에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본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 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일시	2024년 5월 16일(목)~5월 17일(금) ➤ 1일차: 사전행사 ➤ 2일차: 컨퍼런스, 전시부스 개막식
장소	Binh Duong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BCEC)
참가자	(베트남) 19개 성·시 고위급 인사 ➤ 빈증성, 호치민시, 바리아붕따우성, 떠이닌성, 빈푸옥성, 동나이성, 하우장성, 티엔장성, 룽안성, 동탑성, 빈롱성, 짜빈성, 컨터시, 속짱성, 벤째성, 박리우성, 안장성, 키엔장성, 까마우성 (한국) 유관기관 및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베트남 일촌일품(OCOP) 연계 CSR 사업 수요조사

일촌일품(OCOP) CSR이란?



- 일촌일품(OCOP) 정책은 지역을 대표하는 원자재 혹은 1차 상품에 해당 지역의 전문성을 더하여 개발한 특산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매 확대를 위해 도입됨.
- 베트남 63곳의 성, 시에서 다양한 OCOP 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인증을 부여하며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 OCOP와 CSR활동을 결합하여, CSR 활동 대상을 OCOP로 한정한 개념

조사대상	베트남에서 활동중인 한국 투자진출기업 중 CSR활동에 관심 있으신 기업 누구나 **업종, 기업규모, 지역 무관**
조사목적	OCOP 활용 CSR 프로그램 참여 수요를 파악하여 OCOP CSR 사업을 추진하고자함.
설문조사	https://forms.gle/s9E1BfdDtmr4DQ6E8 (바로가기)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Hội nghị Tài chính & Kinh doanh Quốc tế lần thứ 13

'Beyond DX' - 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2024년 3월 21일(목) ~ 23일(토),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

이데일리

행사개요

주 제 | 'Beyond DX' -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여는 디지털 시대

일 시 | 2024년 3월 21일(목)~3월 23일(토)

장 소 |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

주최 | **이데일리**

후원 |

행사소개

이데일리는 3월 21일(목)부터 23일(토)까지 'Beyond DX -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여는 디지털 시대'란 주제로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를 개최합니다.

베트남은 교육 투자 인적교류 등 모든 면에서 아세안 국가 가운데 한국 제1의 협력 파트너입니다. 30년 이상의 수교기간 동안 한국 기업의 내베트남 교류 및 투자도 지속적으로 회복,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금융 및 산업을 포함하여, 한-베트남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로서 새로운 비즈니스·금융·산업환경에 대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IBFC는 금융을 넘어 산업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 관계가 두터워지고 있는 한국과 베트남이 머리를 맞대고 혁신성장, 공동번영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양국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DAY 1 3월 21일(목)

시간	프로그램 및 연사
17:00~17:30	환영 리셉션
17:30~17:50	개회식 개회사: 과재선 이데일리 회장 축사: 최영실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영사: 펜 피언 중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
17:50~18:00	VIP 기념촬영
18:00~18:30	오프닝 세션 아세안·역내 경제협력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한-베 협력강화 모색 이 앙·한일미래포럼 대표(非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
18:30~20:00	환영 만찬

DAY 2 3월 22일(금) 오후

Track 1		Track 2	
13:00~14:00	1-1 베트남 자본·금융시장의 현재와 투자전략 신연경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윤정현 한국부동산연세운 범인장	13:00~13:40	2-1 AI 스마트폰 시대의 개화 - 삼성전자 베트남 R&D센터의 역할 석재원 삼성전자 하노이 R&D센터장
14:00~15:00	1-2 디지털전환(DX)의 시대 - 은행 상생·서비스와 페이 모바일 결제 디지털뱅크 등 중심으로 강규현 신한베트남은행 범인장 공성석 롯데캐피탈 범인장 옹우연 아임 쟁영 중앙경제기획연구소 실장	13:40~14:20	2-2 생성형 AI의 급성장 - 가전·디지털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증·적 중 빙그레인 CEO 증·적 빙그레인 CEO 증·적 빙그레인 CEO
15:00~15:20		브레이크 타임	

15:20~16:20	1-3 건강한 소비에 빠진 베트남 - 토요점의 사장학대 건강보험협회·전문재무설계 등 인슈어테크 접목 황준현 환경생명베풀 범인장 김강우 DB손해보험 범인장 삼상우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소장	15:20~16:20	2-4 베트남 젊은 ICT 유흥 리소스와 부상하는 베리얼 인더스트리스는 전영민 롯데엔터테인 대표 여정운 광개테니 대표 김진원 더인센션 대표
16:20~17:20	1-4 베트남 청년 혁신 - 베트남 블록체인 현황과 발전 전망은 부단 야경 베트남 재무부 경제학자 이정업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회장	16:20~16:50	특별세션 1 베트남 자동차 시장 신호탄 쏘아올린 KGM - 친환경 전기자동차 전략은 김재원 KGM 모빌리티 eV센타장
16:50~17:20		특별세션 2 베트남 진출 한국 중소기업, 필요한 법률정보는 이용해 범무법인 윤호 한노이법인 변호사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사무국

+84-24-6660-8446

hyunyul75@gmail.com

ibfc.edaily.co.kr

한정된 좌석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가등록 QR

참가신청 바로가기



kotra NEWS

베트남
비즈니스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

PARTNERSHIP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 +84 24-3946-0511 □ soorin@kotra.or.kr

< 저작권자 ©KOTRA >